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3/4~3/9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자비는 인연을 가리지 않네 : 그림 경전 말씀	혜조스님	운주사
2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 선지식의 코신 사랑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3	요가디피카 (아헹가요가) 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스님	선요가
4	제로 : 현실을 창조하는 마음 상태	천시아	젠북
5	불교성전	조계종포교원	조계종출판사
6	불교를 사랑한 조선 유학자의 선어록	김대현	운주사
7	낡은 옷을 벗어라 : 법정스님 미출간 원고 08편 수록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8	적명을 말하다(선사들이 들려주는 수좌 적명의 삶)	유철주	사유수
9	화엄경을 머금은 법성게의 보배 구슬	김성철	오타쿠
10	티베트 사람들의 보리심 기도문	청전스님	불광출판사

책세상

처음 펼친 〈금강경〉에 감동, 밤 새 노래 짓다



금강경 강송

백봉 김기추 지음

가을여행 펴냄/1만 8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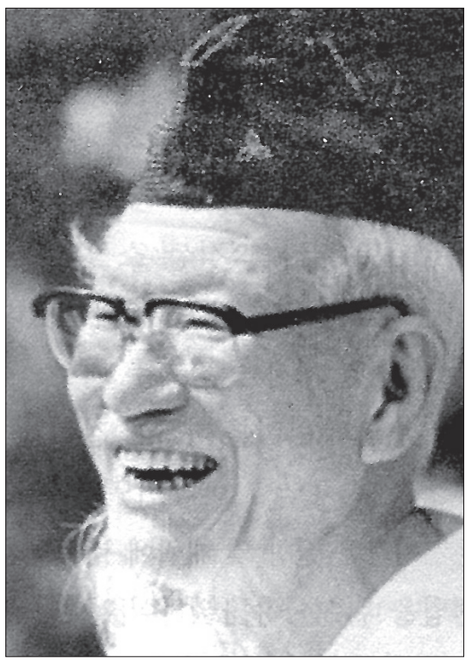
"산에서 내려와 보니 조그마한 금강경이 있어요. 번역이 아니에요.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아이고, 어떻게 어려운지! 그런데 대강 보니 굉장한 책이라! 아는 건 알고 모르는 건 모르는데. 반야바라밀다니 뭣이니 전혀 몰랐죠. 한데 가만 보니 '대강 이 말이다' 하는 걸 알겠어요. 그래서 게송(偈頌)을 달아봤습니다. 게송을 달기 위해서 단 것도 아닙니다, 재미로 달았습니다. 전부 달고 나니 새벽 4시 15분 전이에요. 게송을 달 때 책을 낸다느니 이런 생각은 안 했습니다. 책이란 학자들이 내는 것 아닙니까? 나 같은 무식쟁이가 어떻게 책을 낼 겁니까?" (저자의 말, 1982.7)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이 책은 1976년에 보림선원서 발행한 금강경강송(金剛經講頌) 4판을 한글세대를 위해 새로 편집한 것이다. 백봉 김기추 거사〈오른쪽 사진〉 생존시의 최종판인 1976년판은 한자를 많이 써서 한자에 익숙치 않은 한글세대가 해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곳곳에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 있어 글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한자를 모두 한글로 바꾸고 부분적으로 문장이나 단어의 순서를 조정했다.

그러나 한자를 괄호 안에 표기해 한글화에 따른 오해가 없도록 하였고, 한글 세대에게 낯선 어투도 뜻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굳이 바꾸지 않았다. 1985년 저자가 입적하며 이 책이 절판된 후 헌책방에서도 구할 수 없다며 이 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는 전화가 빗발쳤다. 그러나 한자 혼용, 고어적 표현 등 한글 세대가 가까이하기 어려워 어느 출판사도 책을 내려는 뜻을 내지 못했다. 다행히 2004년 운주사가 뜻을 세우고 한글세대의 감각에 맞게 책을 편집해 출간했다. 그러나 운주사도 이후에 책을 절판함으로써 이 책은 다시 헌책방에서 구하기 어렵고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책이 되었다.

뒤늦은 재편집한 발행에 환영하는 명사들의 추천사도 이어졌다. 석성우(시인, BTN회장) 스님은 "백봉의 금강경을 읽지 않고는 '금강경 읽었다'는 소리 하지 말라! 정말 저는 지금도 이 이야기를 해요, 법회 때마다. '우리나라에 현존(現存)하는 금강경 주석(註釋)이 백 권 정도 될 거다. 그 가운데 출가 쪽으로는 소천(韶天), 재가 쪽에는 백봉 선생이다. 그 두 권은 읽어봐라. 그 두 권 안 읽고는 금강경 읽었다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1976년에 출간한 4판 현대감각에 맞춰 재편집
모두 한글로 바꾸고 부분 문장 단어 순서 조정
50여년간 만권 넘게 보급된 불교계 스테디셀러

전준열 동국대 교수도 소감을 피력했다. "혼탁한 사회, 영혼에 병들고 지혜에 녹슨 이 땅의 생신제(生新劑). 1년전까지는 그저 촉망 받는 일개 구도자였던 이분이 그야말로 일초직입여래지(一超直入如來地)의 기연(機緣)을 가진 줄 모르고 있었다. 그렇기에 나는 이분이 본 강송(講頌)의 교간(校刊)을 나에게 부탁했을 때, 내심으로 '이분이 불교를 얼마 하지 않은 분이니 그리 대단치 않은 것이겠거니' 하였다. 그러나 이 강송을 일단 정독해 보니 그야말로 언언(言言)이 이인당양(利刃當陽)이요, 구구(句句)가 수쇄불착(水灑不着)이요, 부처의 심간(心肝)을 궤뚫는 것이요, 중생을 해체(解體)하여 버리는 기발(奇拔) 그것임에 새삼 감탄 경복(敬服)을 불금(不禁) 하였다. 이것이야말로 백봉 김기추 선생, 이분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요, 불법의 도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시인 홍영의도 한마디 거들었다. "미진(迷津)의 교량(橋梁)이요 암야 (暗夜)의 증명(證明)과 같은 책이다. 백봉 김기추 선생은 금강반야바라밀경을 마치 떡 주무르듯이 자유자재로 그 심오한 의취(義趣)를 갈파(喝破)하고 웅건(雄建)한 송구(頌句)로 노래하였다. 초심자를 위해서나 전문가를 위해서 이 강송서(講頌書)는 어진 사우(師友)요 선지식이 될 것"이라고 극찬했다.

▲백봉 김기추 거사는?

1908년에 부산 영도서 태어났다. 부산 제2상업학교를 중퇴하고 민족운동을 벌이다가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체포되어 1년간 형무소에서 복역했다. 이후 '특급 요시찰 인물'로 일제의 감시와 방해를 받으며 지내다 해방을 맞았다. 해방 후 건국준비위원회 간사장으로 일할 때 굶주리는 시민들을 보고 양곡창고를 열어 쌀을 나누어 준 것이 군정법령 위반이 되어 5년형을 언도받았다. 재심에서 무죄가 되었으나 이미 형무소에서 2년을 복역한 후였다. 이후 학교를 세우는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다 정치에 뜻을 세우고 자유당에 입당하였으나 4 · 19혁명으로 자유당과 함께 파산하고 도피하듯 부산을 떠났다. 서울, 인천에서 하릴없이 세월을 보내다 1963년 여름에 불교를 만나 '무자(無字)'화두를 받고 참구해 이듬해 1월 크게 깨달았다. 이후 인천, 서울에서 〈금강경〉을 강의하다가 1970년 충남 유성에 보림선원을 열고 대학생 및 수좌들을 가르쳤다. 1972년 부산으로 선원을 옮긴 후 선풍(禪風)을 크게 일으켰다. 1985년에 지리산 선원에서 입적했다. 저서로는 〈금강경강송〉〈유마경 대강론〉〈선문염송요론〉(15권) 〈백봉선시집〉〈절대성과 상대성〉 등이 있다.

책 속의 밑줄 긋기

▲"나날이 뚜렷함이여! 안 꺼지는 나날의 등불이로다. 그 성체(性體)는 휘영청이 맑아서 시방(十方)에 두루하고, 그 이량(理量)은 영특스리 밝아서 일체(一切)에 잠겼으니, 이 미(迷)함이냐, 이 깨침이냐! 태산이 눈을 부릅떠서 오니 녹수(綠水)는 귀를 가리고 가는 증처(證處)인지라, 이 실로 너의 알뜰한 터전인 줄로 알라."

▲"생각 생각이 환함이여! 안 꺼지는 생각 생각의 등불이로다. 그 위덕(威德)은 외외(巍巍)하여 사해(四海)를 거느리고 그 공행(功行)은 당당(堂堂)하여 구류(九類)를 건지니, 이 참이냐, 이 거짓이냐! 옛 길에 풀은 스스로가 푸르르니 바름[正]과 삿됨[邪]을 아울러 안 쓰는 용처(用處)인지라, 이 바로 너의 살림인 줄로 알라."

▲"자국 자국이 시원함이여! 안 꺼지는 자국 자국의 등불이로다. 그 수단(手段)은 호호(浩浩)하여 이변(二邊)을 거두움에 뜻하여 이루지 못함이 없고, 그 방편(方便)은 탕탕(蕩蕩)하여 삼제(三際)를 말아냄에 행하여 달(達)하지 않음이 없으니, 이 실다움이냐, 이 헛됨이냐! 만약 오늘일을 논의하면 문득 옛 때의 사람을 잊어버리는 응처(應處)인지라, 이 오로지 너의 맡음[任]인 줄로 알라."

▲이렇듯이 천당을 세우고 지옥을 세움도 도무지 한생각에 달렸고, 중생을 굴려서 부처를 지음도 오로지 한 마음에 걸린 것이니, 어찌 중생이란 이름자를 걷어잡고 부처님의 제도(濟度)를 새삼 기다릴까 보냐. 비록 그러하나 부처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중생성(衆生性) 중에 본래로 생멸(生滅)이 없는 줄을 깨쳐 알고서 입으로는 무상법(無相法)을 말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무상행(無相行)을 닦지 않으면 어느 때를 기다려서 무상도(無上道)를 깨치리요. 알지어다! 법(法)을 취함도 원래가 어리석은 짓이지만, "공(空)을 깨쳤다" 함도 또한 이에 참이 아니어늘, 어디로 향하여서 천진면목(天眞面目)을 접하겠는가. 이 또한 드높은 고개로다. 모름지기 법(法)과 공(空)을 다 놓으라. 놓다가놓다가 보면 안 놓이는 것이 있으리니, 이 바로가 본래로 확연한 영지(靈知)인지라, 애오라지 눈에 보이는 것마다 만고(萬古)의 풍광(風光)이요, 귀에 들리는 것마다가 겁외(劫外)의 지음(知音)인걸! 어찌 들뜬 의심을 좇아서 몸 밖을 향할까 보냐!

▲"애오라지 부처님이 법의(法衣)를 입으심은 참으로 입으심일까? 그러나 법의를 입으시지 않음도 아니며, 바리를 드심은 참으로 드심일까? 그러나 바리를 드시지 않음도 아니며, 사위의 큰 성안으로 들어가심은 참으로 들어가심일까? 그러나 사위의 큰 성안으로 들어가시지 않음도 아니며, 밥을 비심은 참으로 비심일까? 그러나 밥을 비시지 않음도 아니며, 본곳으로 돌아오심은 참으로 돌아오심일까? 그러나 본곳으로 돌아오시지 않음도 아니며, 진지를 마치심은 참으로 마치심일까? 그러나 진지를 마치시지 않음도 아니며, 의발(衣鉢)을 거두심은 참으로 거두심일까? 그러나 의발을 거두시지 않음도 아니며, 발을 씻으심은 참으로 씻으심일까? 그러나 발을 씻으시지 않음도 아니며, 자리를 베풀어 앉으심은 참으로 앉으심일까? 그러나 자리를 베풀어 앉으시지 않음도 아님이로다. 히힛! "약무공중월(若無空中月)이면 안득천강월(安得千江月)이리요." 이 무슨 소식일까?"

▲"장하도다, 장로 수보리시여 ! 세존이 한마디의 말씀도 끄집어내시기도 전에 그 뜻을 드시었으니 그 경계를 알아차리셨네. 그 경계라서 한마디의 말귀로 「드무십니다」 하시니 바로 천기를 누설함이로다. 천기를 누설함이여 ! 구름은 가다가 멈추지 않고 그대로 가며, 달은 뜨다가 멈추지 않고 그대로 뜨며, 물은 흐르다가 멈추지 않고 그대로 흐르며, 꽃은 피다가 멈추지 않고 그대로 피니, "여여부동이여 조이상적(照而常寂)하고, 올올회광(兀兀回光)이여 적이상조로다." 번역하되 "의젓하여 안 움직임이여, 비추어서 항상 적적하고, 오뚝하여 빛을 돌이킴이여, 적적해서 항상 비춤이로다." 허허 ! 한 개 뿔 난 토끼가 물속 달을 품음이로다."

위빳사나 수행의 소의경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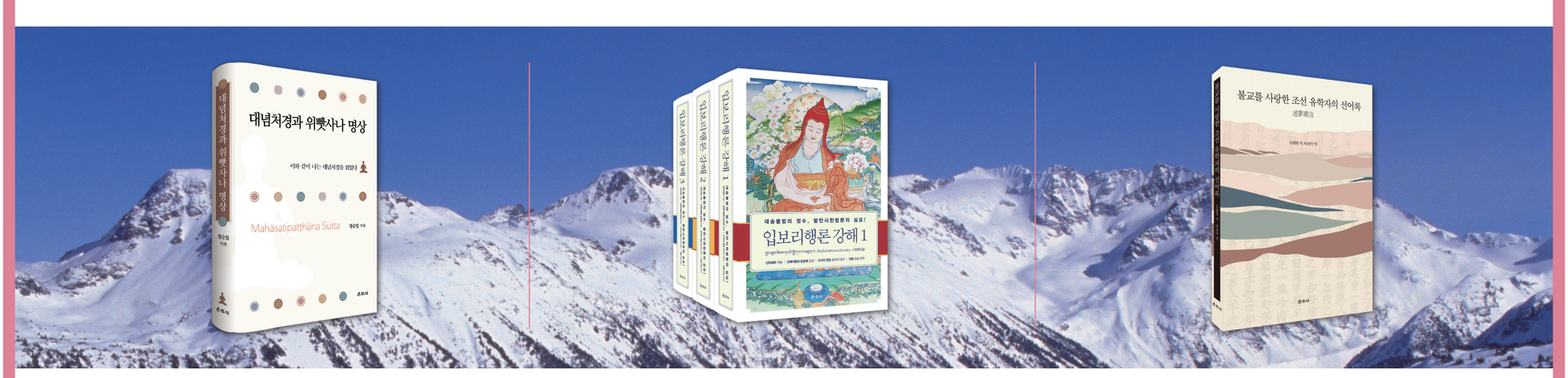
대념처경과 위빳사나 명상

티베트 수행자들이 반드시 배우고 수행하는 논서!

입보리행론 강해 1~3

조선의 유학자, 깨달음을 말하다!

불교를 사랑한 조선 유학자의 선어록



불교 명상의 핵심인 사띠(sati)에 대한 가르침을 담은
『대념처경』의 빨리어 전문을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온전히 번역하고 해설!

정순일 역해/신국판/양장/376쪽/값 22,000원

대승불교의 핵심인 보리심과 공성에 대한 샨티데바의
가르침에 진메이펑춰 린포체가 방대한 해설을 달았다.

샨티데바 게송/진메이펑춰 린포체 강설/지엄 편역

신국판/양장/1권 668쪽, 2권 656쪽, 3권 680쪽/각권 값 35,000원

<술몽쇄언述夢瑣言>

꿈이라는 소재를 통해 불교의 깨달음과 수행, 생사 문제를
조리정연하게 설파한 보석 같은 책!

김대현 저/박성덕 역/국판/208쪽/값 12,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